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참 고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3.8.29.(화)		
담당부서	여신금융검사국 검사기획팀 여전업검사1팀	책임자	국 장	이호진	(02-3145-8810)
		담당자	팀 장	조영범	(02-3145-8805)
			팀 장	최관식	(02-3145-8816)

카드社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검사 후 조치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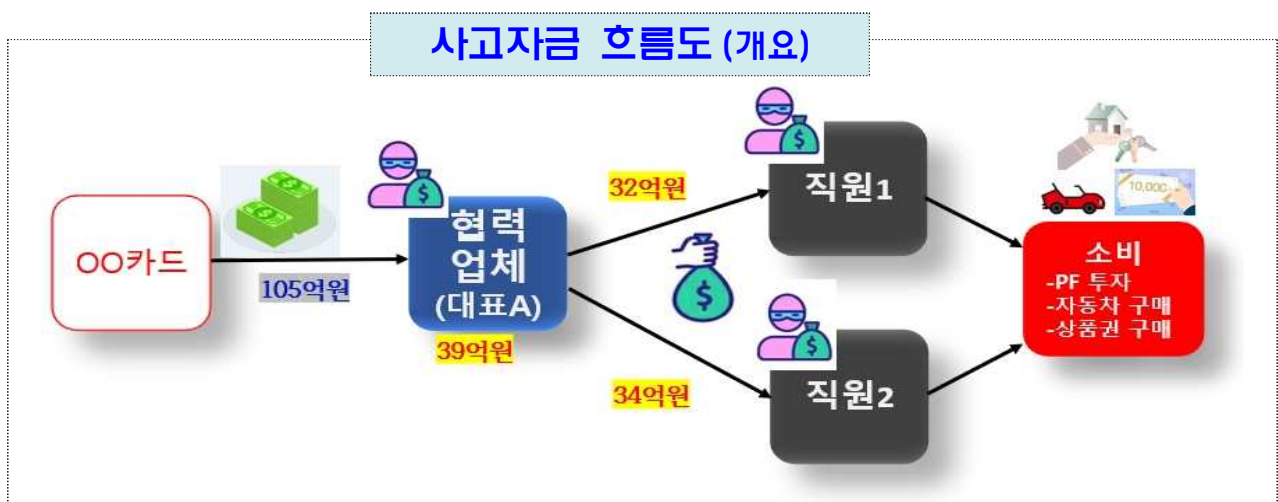
- 주요 내용 -

- ◆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○○카드사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'23.8.14. 해당 카드사 직원 2인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.
- 해당 카드사는 7.4. 상기 혐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*하였고, 금융감독원은 7.6. 현장검사에 착수하였으며,
 - * 해당 카드사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(자기자본의 2% 초과)에 미달하여 공시는 미 실시
- 검사결과, 마케팅팀 직원(2인)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, 카드사로부터 105억원*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.
 - * 사고자는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, 자동차·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
- ◆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,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,
 - 쏘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.

1 | 검사결과 개요

- 카드사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사고자 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동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 한 후,
 - ①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②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③카드발급 회원당 年비용(1人당 1.6만원)을 정액 先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하였고,
 - 카드사는 상기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'20.10월 ~ '23.5월 기간 중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하였으며,
 - 사고자 2인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, 자동차·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

※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,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



2 |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-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,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하여 위탁

-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하면서,
 - 신규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하고, 입찰설명회를 생략하였으며,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
-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*이고, 비용 先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부재하며,
 - * '커피, 다이닝, 골프, 호텔 등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 개발', '상기 서비스에 관한 할인 및 무상 제공'이라고만 기재
 - 계약기간(5년)을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(3년)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등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체결
- 한편, 상기 업체선정·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,
 -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

3 | 조치내용

- 금감원은 상기 혐의사실에 대하여 카드사 직원 2인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(업무상배임)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,
 -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
- 아울러, 금감원은 해당 카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,
 - 쉐카드사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
-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